

겨울 극장가 달구는 '스릴러'

한 사건으로 묶인 연쇄살인 '비밀' 손녀 유해 찾는 할머니 '물비늘' 집요한 추적로 진실에 다가서



영화 '물비늘' 한 장면



영화 '비밀' 한 장면

죽음의 이면에 숨겨진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을 내세운 한국 스릴러 영화 두 편이 울거울 잇따라 관객을 찾는다. 분위기와 매력은 각각 다르지만, 집요한 추적으로 진실에 다가가고 그 과정에서 목적인 주제를 던진다는 점은 닮은꼴이다.

◇ 말 한마디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비극... 김정은이 형사역을 맡은 '비밀'

다음 달 8일 개봉하는 임경호·소준범 감독의 '비밀'은 한 살인 사건의 수사를 맡은 형사 동근(김정은 분)의 시선을 따라간다.

그는 피해 남성의 입 안에서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힌 쪽지 봉투를 발견한 뒤 사건이 예상롭지 않음을 느낀다.

동근은 쪽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조사하고, 10년 전 피해자와 함께 군에서 복무했던 영훈의 것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영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다. 복무 당시 선임들의 괴롭힘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범인이 누구인지 미궁에 빠지려는 찰나에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번에도 피해자의 입속에는 영훈의 다른 쪽지가 들어 있다.

동근은 연쇄살인 사건과 영훈의 죽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확신한다. 수사 과정에서 영훈이 실은 자신과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사실도 파악한다. 평소 냉철한 성격의 동근이지만, 옛 친구의 고통을 꼬리 물듯 접하면서 점차 이성을 잃는다.

평범한 추적극으로 시작한 영화는 영훈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차례로 보여주며 집단의 낙인찍기가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오는지를 말한다. 그 낙인찍기는 누군가가 대수롭지 않게 밝은 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비밀'은 주제 의식이 강한 영화이긴 하지만 장르적 재미도 놓치지 않는다. 동근의 발자취는 추리물을 보는 듯한 재미가 있고, 나중에 밝혀지는 범인의 정체도 뒤통수를 친다.

◇ 그가 건지려는 건 진실인가 죄책감인가... 김지영 연기 빛난 '물비늘'

다음 달 6일 극장에 걸리는 임승현 감독의 '물비늘'은 평범하다 평범한 할머니 예분(김지영)이 주인공이다.

그는 날마다 강에 들어가 탐지기를 이용해 무언가를 찾는다. 1년 전 리프팅을 하다 실종된 손녀 수정의 유해와 유품이다.

알코올 중독이던 예분은 수정이 죽던 날도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할머니와 싸운 뒤 친구를 만나러 간 수정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예분은 수정의 어머니인 딸과도 연락을 끊은 채 강에서 살다시피 한다. 필사적으로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으려는 그를, 마을 사람들 모두 안타깝게 여긴다.

하지만 수정의 절친한 친구 지윤(홍예서)은 이런 그를 외면한다. 그날 수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무엇 때문인지 좀처럼 예분에게 이를 털어놓지 않는다.

어린 수정의 삶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아버지는 빚쟁이를 피해 도망 다니고 할머니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당장 그를 보호해줄 사람도, 머무를 집도 없다.

영화는 지윤의 고백이 나오는 후반부까지 미스터리로 유지한다. 예상과는 달리 수정의 죽음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같은 아픔을 지닌 예분과 수정이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이 왜 그토록 죄책감에 시달려왔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임 감독은 "지윤과 예분 모두 수정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서 "두 캐릭터의 동력은 수정을 잃은 상실과 죄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설명했다.

독립영화계를 대표하는 중견 배우 김지영은 이번에도 훌륭한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허무함과 광기, 죄스러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담은 표정 연기가 일품이다. /연합뉴스

K-팝 10월 누적 수출 3000억 돌파

대미 수출액 전년비 67% 급증... 대중 수출액 반토막과 대조

올해 1~10월 K팝 음반 누적 수출액이 3000억 원을 넘기며 연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중(對中) 음반 수출액 감소와 유망 아이돌 그룹의 신보 판매량이 전작보다 하락한 점 등을 들어 'K팝 위기론'도 대두된다.

가요계에서는 이에 연말과 내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첫 주 판매량 늘리기에 '울인'하는 풍토는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K팝 수출액 10월에 이미 경신... 미국 '맑음'·중국 '호림'

26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음반 수출액은 2억4381만4천달러(약 3183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20.3% 증가했다.

10월까지의 기록만으로 작년 한 해 수출액을 웃돌며 연간 기준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음반 연간 수출액은 2020년 1억3620만1천달러(약 1779억원), 2021년 2억2085만달러(약 2885억원), 지난해 2억3천138만9천달러(약 3023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올해 1~10월 K팝 수출 시장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미국, 중국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대만, 독일, 홍콩,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영국이 뒤따랐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67.3% 증가했지만, 대중 수출액은 51.1% 감소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에 올해 1~10월 음반 대미 수출액은 5천432만2천달러(약 710억원)로 대중 수출액 2천333만5천달러(약 305억원)의 2배를 웃돌았다.

올해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과 정국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스트레이 키

즈, 뉴진스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등 K팝 스타들이 미국 시장에서 저변을 넓혔다.

◇ 성장 빨라나... 중국발 'K팝 위기론' 술술 이 같은 '수출 성적표'를 바라보는 가요계의 시각은 복잡하다.

최근 몇 년간 K팝 음반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큰손' 중국 시장의 축소 등으로 이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는 위기론도 함께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국내 대형 기획사 소속 간판 아이돌 그룹의 첫 주 판매량이 전작보다 수십만장씩 감소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 같은 우려는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가요계에서 첫 주 판매량은 팬덤의 규모와 응집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교보증권 박성국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앨범 판매량 감소에 따른 엔터 산업 성장률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며 "판매량 역성장 주요인은 중국 공동구매 감소로, 그 원인은 불명확하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다만 그 배경으로 ▲ 중국 정부의 그룹자 규제 ▲ 중국 경기 부진 ▲ 중국 팬클럽 간 경쟁 자정 작용 ▲ K팝 성장 한계 봉착 등을 추측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이달 초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최근 주요 시장에서의 지표 하락이 보이는 게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구간은 '굉장히 강렬한 팬덤의 소비'라며 "K팝 팬은 강렬한 몰입도와 집중적인 소비를 보이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는 확장성의 한계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세영표' 사극 또 통할까

'열녀박씨' 첫방 시청률 5.6%

드라마 '웃소매 붉은 굿동' 이후 다시 MBC 사극으로 복귀한 이세영의 '열녀박씨 계약결혼녀' (이하 '열녀박씨'·사진)이 시청률 5.6%로 출발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 MBC '열녀박씨' 첫 회 시청률은 5.6%로 집계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선시대 박연우(이세영)와 강태하(배인혁)의 반복되는 운명적인 만남이 그려졌다. 박태감택 외동딸 박연우의 부모는 혼기가 차도 혼인하지 않는 딸을 안타까워했지만, 박연우는 자신의 꿈인 옷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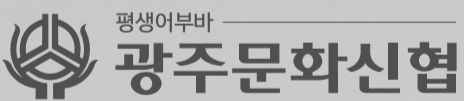
그러던 중 왕명으로 인해 강제로 혼인하게 되는 데, 그 상대가 강태하다. 그러나 가슴에 병증이 있어 혼인을 피해 왔던 강태하는 결국 결혼 첫날밤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고, 박연우는 남편을 잃은 깊은 슬픔에 빠진다.

그때 정체를 몰고 누군가가 박연우를 납치해 우물 안에 던지는데, 그 순간 모든 시공간이 멈추고, 물



속에서 강태하와 똑 닮은 남자를 만난다.

유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열녀박씨'는 속도감 있는 전개와 사극 특유의 영상미를 살린 연출이 눈길을 끈다. 현대에서 다시 조우한 박연우와 강태하의 인연이 어떻게 엮일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관심을 모은다. /연합뉴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